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 ‘더 기아 K4’ 베일 벗었다

강인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생성형 AI ‘기아 어시스턴트’ 탑재 준준형 새 기준 제시...뉴욕 오토쇼 공개, 하반기 북미 시장 출시

기아가 신형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The Kia K4)’가 모습을 드러냈다.

1일 기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기아는 K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K4는 기존 기아의 대표 준중형 세단이었던 ‘K3’의 후속작이다. 기아는 앞서 준대형 세단이었던 K7의 네이밍을 K8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번 K4 역시 K3 대체 모델인 셈이다.

숫자가 하나 더 커진 만큼, 기아는 K4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준중형 체급을 뛰어넘는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나 형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현대차 아반떼에 밀려 매년 2인차 노릇을 했던 설움을 K4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아는 K4가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를 기반으로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전면부는 기아의 패밀리 룩으로 자리잡은 ‘타이거 페이스’가 돋보인다. 호랑이 어금니 형상의 가로·세로 길고 넓은 헤드램프는 준중형 답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띤다.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라이팅 기술도 한층 진화된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보여준다.

측면부는 빛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한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표현하고, 루프에서 후면부까지 뿔

어지는 완만한 곡선은 역동성을 보여준다.

후면부도 전면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세로형 램프가 하단부 범퍼를 수직으로 잘라내듯 길게 이어지며, 에어 디퓨저도 멋스러운 느낌을 준다.

실내는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이유 있는 즐거움(Joy for Reason)’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기아는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등 약 3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그 아래 사용 빈도가 높은 내비게이션과 공조 기능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 버튼을 적용했다.

도어 트림, 크래시패드, 콘솔의 색상을 운전석의 ‘오닉스 블랙’과 동승석의 ‘슬레이트 그린’·‘미디움 그레이’·‘캐니언 브라운’ 등 세가지 조합으로 운영, 색상의 대비를 통해 두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했으며 동승석 크래시패드에는 무드조명을 적용해 안락한 감성을 더했다.

K4 GT라인은 더 강인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GT라인 전용 범퍼와 사양을 적용했고, 실내는 오닉스 블랙과 ‘오프 화이트’의 색상 대비와 함께 전용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 요소로 기본 모델 대비 한 층 더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K4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됐다. 자연어 이해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운전자와 자연스러운 방식의 대화



최근 공개된 기아 신형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The Kia K4)’.

〈기아 제공〉

가 가능하다.

기아는 고객이 고도화된 차량 이용경험이 가능하도록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여행 설계를 지원하거나 오닉스 매뉴얼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퀵 컨트롤’·‘무선 폰 커넥티비티’ ▲디지털 키 2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최신 커넥티비티 사양을 제공한다.

엔진은 2.0 가솔린 엔진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 두 가지로 출시한다.

2.0 가솔린 모델은 IVT 변속기와 조합해 최고출력 149마력(ps), 최대토크 18.3kgfm(132lb-ft)를 발휘하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해 최고출력 193마력(ps), 최대토크 27.0 kgfm(195lb-ft)의 동력성을 갖췄다.

또 K4는 후석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8 에어백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보조, 전방 충돌방

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 거리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기아 K4는 올해 하반기 북미시장에 출시된다. 아직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

기아 관계자는 “K4는 앞선 기술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역동적인 세단을 제공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K4는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기차 보조금 내년엔 더 줄어든다...충전 인프라에 역점

기재부·환경부 감축 방안 협의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보다 더 줄어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

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방향은 지원 물량은 늘리되 지원 단가는 줄어왔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가를 낮춰 아끼는 재원으로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이어 견지되는 기조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 5652억원에서 올해 2조33193억원으로 9.6%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함으로써 강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의 출고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벤츠, 부분 변경 ‘더 뉴 G-클래스’ 공개

독보적 오프로드 특성 유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착

벤츠가 세계시장에서 오프로드 차량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벤츠 ‘G-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The new Mercedes-Benz G-Glass)’를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G-클래스는 기존 아이코닉한 외관과 독보적인 오프로드 특성을 유지한 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향상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최첨단 편의 기능과 디지털 요소를 추가해 어떤 조건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주행 라인을 제공하는 차량이다.

벤츠는 G 500, G 450d와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을 출시하고, 연내 전기 구동 G-클래스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더 뉴 G-클래스의 외관은 특유의 각진 외형과 야남로그 감성의 디테일을 그대로 이어간다..

아이코닉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후면 범퍼, 후방 카메라 배치 등의 디테일이 섬세하게 변경됐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수평 루브르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으며, 전면 범퍼에는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 장식의 디테일이 더해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다. 후방 카메라는 변조판 위쪽 범퍼 중앙에 새롭게 배치됐으며, 그 옆에는 오염에 대비한 와이퍼액 노즐이 장착돼 빗우리 워셔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게 된다.

이번 내연기관 모델에는 새로운 A-필러 클래딩, 루프 가장자리의 스포일러 림, 새로운 단열재 등 공기역학 및 정숙성 개선 등을 G-클래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요소도 적용됐다. 또한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18인치 5-트윈 스포크 알루미늄 휠과 LED 고성능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그 외 옵션으로는 소달라이트 블루 메탈릭 색상 외관이 추가됐으며, 18-20인치 사이즈의 새로운 휠 디자인도 제공된다.

더 뉴 G-클래스의 외관 디자인으로는 총 3가지 라인이 제공된다. 오프로드 특성을 강조하는 프로페셔널 라인은 헤드라이트용 스톤 가드 그릴, 머드 플랩, 18인치 올-테레인 타이어가 포함돼 있다.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실버 크롬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스포어 휠 링, 사이드 러닝 보드로 차량의 특별한 개성을 강조한다. AMG 라인은 휠 아치 익스텐션, 20인치 AMG 알루미늄 휠, 나파 가죽 소재의 스티어링 휠 등 역동적인 내·외관으로 스포티함을 더했다. 또한,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블랙 색상의 나이트 패키지도 옵션으로 적용 가능하다.

더 뉴 G-클래스의 인테리어는 선구적인 디자인 언어와 최신편 장비가 적용돼 독보적인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G 500 모델은 트윈 터보차저가 장착된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최대 449 마력 560 Nm의 토크를 발휘한다. G 450d의 경우 6기통 디젤 엔진으로 367 마력 750 Nm의 최대 토크를 갖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캐스퍼 무상점검 20·27일 25곳서 서비스

현대차는 ‘봄맞이 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캐스퍼 출고 고객 대상으로 특별 무상 점검해주는 행사다.

엔진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하는 서비스와 워셔액, 와이퍼, 에어컨 필터 등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현대차 또는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 마이현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는 4월 20일과 27일 양일간 하이테크센터를 비롯



한 전국 주요 지역 25개소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진공청소기, 차량 방향제, 타이어 광택제 등이 비치된 ‘셀프 케어 존’도 운영된다.

간단한 세차용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와 주요 쿠폰 5만원권을 주는 추첨 이벤트도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고차 반납하면 신차 할인 기아 ‘트레이드-인’ 서비스

기아는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 중고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출고기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따라 기아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기존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보유한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어야만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고객은 전기차 전 차종과 K5-K8(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봉고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 차종은 10만원을 할인받는다.

트레이드-인을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 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경주차 ‘아이오닉 5 N eN1 컵 카’ 공개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공식 연습 라운드에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Cup car)’(사진)를 공개했

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 kW(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경주차다. /김민석 기자 mskim@